

200618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 시험 범위 : 전범위

1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번] [정답률 91%]

(가)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 즉 ‘좋다’, ‘옳다’와 같은 단어들의 쓰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도덕적 언어들로 구성된 문장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①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다.
- ②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이다.
- ③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 ④ (가)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이다.
- ⑤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이다.
- ⑥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이다.
- ⑦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다.
- ⑧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이다.
- ⑨ (가),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이다.
- ⑩ (가), (나) : 윤리학의 핵심 과제는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다.

2

(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긍정, (나) 사상의 입장에서는 부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2번] [정답률 81%]

(가) 자신의 수양을 경(敬)으로써 하며,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이를 편안하게 한다. 요순(堯舜)도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은 항상 부족하다 여기고 노력하였다.

(나) 배우면 날마다 쌓이고, 도에 따르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면 무위(無爲)에 이른다. 무언가 일삼으려 하면 오히려 부족하며, 일삼지 않아야 천하를 취할 수 있다.

- ①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보아야 하는가?
- ②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③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하는가?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하는가?
- ⑤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 ⑥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가?
- ⑦ 성(性)을 부여한 하늘[天]의 명령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 ⑧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여 예(禮)를 실천해야 하는가?
- ⑨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관계에 의해 생겨남을 깨달아야 하는가?
- ⑩ 열반(涅槃)에 도달하기 위해 불변의 자아를 인식해야 하는가?
- ⑪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3

그림의 강연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3번] [정답률 84%]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성은 운명적인 여성성이라는 속임수로 여성을 지배하고 강제했습니다. 여성의 자연스러운 출산마저 사회는 모성의 의무로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취급되면 반드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 합니다. 이때 여성은 남성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남성은 계속 지배하려 하므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 갈등은 남성과 여성이 자율적 존재로서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적 성과로 이어져 새로운 여성이 탄생해야 끝이 납니다.



- ① 여성은 남성에게 헌신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 ② 여성의 의무는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 ③ 여성성은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적 산물인가?
- ④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통해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가?
- 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우월성이 여성을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
- ⑥ 왜곡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은 경제적 독립을 성취해야 하는가?
- ⑦ 여성과 남성은 실존하는 주체로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지니는가?
- ⑧ 여성이 주체가 되고 남성이 객체가 될 때 참된 성(性) 평등이 실현되는가?
- ⑨ 여성은 남성과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는 정당한가?
- ⑩ 여성이 지닌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각성도 필요한가?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4번] [정답률 74%]

- 갑 :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 동물 복제는 허용되어야 합니다. 동물 복제는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뿐만 아니라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을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 복제는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일’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갑 :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인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을 : 인간 배아는 성인으로서의 도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인간으로 발달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①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②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가?
- ③ 동물 복제는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하는가?
- ④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⑤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 ⑥ 인간 개체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
- ⑦ 효용성에 의해 배아의 가치가 결정되는가?
- ⑧ 동물 복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는가?

5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5번] [정답률 80%]

과학자들은 과학이 일정한 규칙하에 인과적 필연성을 검증하는 순수 이론의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다. 과학은 인식대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자연은 오직 인과적 필연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술적 응용이 과학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거대한 권력으로 작용하는 과학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의심스러운 때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에 귀 기울여 책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 <보기>
- ㄱ. 과학 기술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ㄴ. 과학 기술자는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 ㄷ. 과학 기술자는 기술적 응용에서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
 - ㄹ. 과학 기술자는 사회적 책임보다 내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 ㅁ. 과학 기술의 폐해에 대한 책임은 인간만이 질 수 있다.
 - ㅂ. 과학 기술자는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 ㅅ. 과학 기술자는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 ㅇ. 새로운 윤리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
 - ㅈ.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윤리적 책임에서 면제시켜 준다.
 - ㅊ. 새로운 윤리학은 “A이면 B하라.”라는 형식의 명법만을 지향한다.
 - ㅋ. 과학 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한다.
 - ㅌ. 과학 기술자는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6번] [정답률 89%]

- 갑 : 목민관은 책객(冊客)*을 두어 회계를 맡겨서는 안 된다. 관부의 회계는 공적 사용과 사적 사용이 모두 기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내의 친척과 친구를 단속하여 의심과 비방이 생기지 않도록 하되, 서로의 정(情)을 잘 유지해야 한다.
 - 을 : 나라가 올바르게 되려면 그 구성원들이 각자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이들 중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 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통치자들은 공동생활을 하며, 공동체를 위해 유의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시민들을 보살피야 한다.
- * 책객 : 고을 원에 의해 사사로이 채용되어 비서 일을 맡아보는 사람

- ① 갑 : 공직자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의 경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② 갑 :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 ③ 갑 : 공직자의 검약은 백성의 충성에 상응하는 조건적 의무야 한다.
- ④ 갑 : 공직자가 청탁의 대가를 받을 경우 이를 백성 구제에 써야 한다.
- ⑤ 을 : 통치자는 지혜의 덕을 발휘하여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
- ⑥ 을 : 통치자는 시민들이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⑦ 을 : 철인과 달리 군인과 생산자는 서로 역할 교환을 할 수 있다.
- ⑧ 을 : 개인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 ⑨ 을 : 통치자는 각 계층 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민주정치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 ⑩ 갑, 을 :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 ⑪ 갑, 을 : 공직자는 엄격한 자기 절제(節制)를 실현해야 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7번] [정답률 73%]

○ 갑 :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진다. 이 제도의 체계에서 처지가 나은 자들의 보다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 을 :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다. 자연적 자산의 경우에도 개인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지며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① 갑 :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
- ② 갑 :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③ 갑 : 공정한 절차로 발생한 결과라면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정의롭다고 여길 수 있다.
- ④ 갑 :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
- ⑤ 갑 :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으로 간주될 대상이 아니다.
- ⑥ 을 :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이다.
- ⑦ 을 :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된 결과보다는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달려있다.
- ⑧ 을 : 각 개인들의 과거 행적만이 재화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산출한다.
- ⑨ 을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⑩ 을 :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된다.
- ⑪ 갑, 을 :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⑫ 갑, 을 : 천부적 운과 달리 사회적 운은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이지 않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8번] [정답률 85%]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거주라고 한다. 그러나 거주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낯선 공간에 존재하거나 머무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거주는 특정 장소를 집으로 삼아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한 거주는 마음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이다. 이런 거주는 본래부터 타고난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쏘아 붓는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

- ① 거주는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장소에 속해 있는 방식이다.
- ② 삶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주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 ③ 거주는 인간이 집에 머무르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 ④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다.
- ⑤ 거주는 인간이 세계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 ⑥ 거주 공간은 참된 자신을 되찾는 내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
- ⑦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열려 있지 않은 폐쇄적 공간이어야 한다.
- ⑧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된다.
- ⑨ 인간은 성스럽다고 여기는 곳에 거주할 때에만 내적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 ⑩ 인간이 머무는 모든 곳은 공간이 주는 의미와 무관하게 세계의 중심이 된다.

9

그림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9번] [정답률 56%]



- ① 갑 :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갑 :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빈곤 해소 시점까지만 행해져야 한다.
- ③ 갑 :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④ 갑 :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사회나 국가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 ⑤ 을 : 원조의 대상은 지리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⑥ 을 :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⑦ 을 : 원조는 친소(親疏) 논리와 개인의 소유 권리론에 근거해야 한다.
- ⑧ 을 : 원조의 목적은 공익 증진이 아닌 부정의의 교정에 있다.
- ⑨ 갑, 을 : 원조 목표는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다.
- ⑩ 갑, 을 : 원조는 윤리적 의무이며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0번] [정답률 79%]

(가)	<p>○ 갑 :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p> <p>○ 을 :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p> <p>○ 병 :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는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p>
(나)	

- ① A :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A : 형벌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B :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공리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D : 범죄 피해자의 보복 의지가 형벌의 근거임을 간과한다.
- ⑥ D : 형벌은 범죄 예방에 지속적 효과가 있도록 제정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⑦ F :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 ⑧ F : 형벌은 범죄 억지 효과를 갖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⑨ C, E : 형벌이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⑩ C, E : 보복법만이 형벌에서 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1번] [정답률 73%]

○ 갑 :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이는 공동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 을 :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우리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심각한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봐야 한다.

- ① 갑 :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이다.
- ② 갑 :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모든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③ 갑 : 시민 불복종은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다.
- ④ 갑 : 시민 불복종은 경고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
- ⑤ 갑 : 정의의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시민 불복종은 유일한 저항 수단이다.
- ⑥ 을 :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해악이 고려되어야 한다.
- ⑦ 을 :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⑧ 을 : 시민 불복종은 성공 가능성과 불복종 행위의 영향을 고려해 실행되어야 한다.
- ⑨ 갑, 을 : 시민 불복종 참여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⑩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 ⑪ 갑, 을 :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2번] [정답률 86%]

○ 갑 :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특성이다. 우리가 덕을 소유하고 실천하면 사회적 관행에 내재하는 선을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덕을 습득하지 못하면 그러한 선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

○ 을 :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 ① 갑 : 인간은 타고난 덕을 실천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갑 : 덕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이다.
- ③ 갑 : 도덕 판단의 기준은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이다.
- ④ 갑 :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하다.
- ⑤ 을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다.
- ⑥ 을 :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 법칙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 ⑦ 을 : 의무와 선의지는 모두 도덕 법칙의 존재를 전제한다.
- ⑧ 을 :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도 도덕적으로 무가치할 수 있다.
- ⑨ 갑, 을 :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동기와 감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 ⑩ 갑, 을 :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자연적 본성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13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3번] [정답률 91%]

(가) 군자는 밥이 완성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식재료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마음을 절제하여 탐욕을 없애야 한다. 밥 먹을 때에도 인(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나)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淨)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 ① (가) : 중생의 불성(佛性)에 유념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② (가) :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 음식의 양은 많을수록 좋다.
- ③ (가) :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다.
- ④ (가) : 음식 섭취에서 사치스러움을 경계해야 한다.
- ⑤ (나) : 음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다.
- ⑥ (나) : 음식을 먹는 것이 수행의 연장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 ⑦ (나) : 음식은 욕망을 자극하므로 모두 금해야 한다.
- ⑧ (나) : 음식 생활에서 검소와 절제의 자세가 필요하다.
- ⑨ (가), (나) :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며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⑩ (가), (나) :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윤리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

14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4번] [정답률 90%]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어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한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표현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악성 댓글이 표현의 자유를 남용한 일탈 행위로서 해당 개인과 집단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이 이 문제를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
- ③ 표현의 자유보다 해악 금지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타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⑤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⑥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강제력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⑦ 개인의 자정 노력만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⑧ 표현의 자유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⑨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함을 간과한다

15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5번] [정답률 41%]

(가)	<p>○ 갑 : 도덕 판단은 보편화 가능해야 한다. 어떤 이익이 단지 인간에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 관심을 가진 동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p> <p>○ 을 : 도덕적 존중의 대상에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 동물도 포함된다. 그들 각각은 다른 존재의 이익과 독립해 개별적 복지를 추구한다.</p> <p>○ 병 :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물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p>
(나)	

- ① A :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② A :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져야 도덕적 고려를 받을 수 있다.
- ③ B : 목적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 존재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 ④ B : 쾌고 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인 동물의 복리(福利) 고려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 ⑤ B : 이성적 사유 능력이 없는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⑥ C :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인간성 실현을 저해함에 있다.
- ⑦ C :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는 이성이다.
- ⑧ C : 동물 학대가 인간의 의무에 위배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⑨ D :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는 부여되어야 한다.
- ⑩ D :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6번] [정답률 91%]

○ 갑 :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현자는 사려 깊음을 통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한다.

○ 을 :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 ① 갑 : 죽음 이후에 비로소 선의 본질이 드러난다.
- ② 갑 : 현세의 삶은 사후의 영혼의 삶에 영향을 준다.
- ③ 갑 : 죽음의 본질을 알면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
- ④ 갑 : 인간은 살아 있을 때이나 죽은 이후에도 죽음을 느끼지 않는다.
- ⑤ 을 : 죽음의 순간에 육체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한다.
- ⑥ 을 : 죽음의 두려움은 감각적 쾌락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 ⑦ 을 : 죽음은 참된 행복을 위해 겪어야 할 고통에 불과하다.
- ⑧ 을 : 죽음을 통해 영혼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⑨ 갑, 을 :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 ⑩ 갑, 을 : 죽음 이후 내세에서 최고선인 행복이 실현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7번] [정답률 90%]

오늘날 대중문화는 얼마나 인기를 끌고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대중문화는 변화 없는 반복적인 오락물을 생산하는 장사가 되었고, 문화의 소비자는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되었다. 이처럼 산업화된 대중문화 속에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획일적 생산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문화 상품의 속성은 문화 소비자의 자발성과 상상력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적극적인 사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려 한다.

- ①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
- ②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 ③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
- ④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
- ⑤ 문화 산업은 예술을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미적 가치로만 평가한다.
- ⑥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대중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빼앗고 둔화시킨다.
- ⑦ 예술이 상업화됨에 따라 예술 작품이 지닌 상품 가치는 사라진다.
- ⑧ 예술의 상업화로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 예술 작품이 등장한다.
- ⑨ 문화 산업은 자본을 바탕으로 대중의 욕구와 문화 생산물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 ⑩ 문화 산업은 대중이 문화 생산자로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18

(가), (나)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3점]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8번] [정답률 40%]

(가) 국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 존재인 국가들이 합리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고, 세력 균형, 동맹, 비밀외교 등을 영원히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나 제도에 의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 국제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한 국가나 국가들의 동맹이 우월한 힘을 갖게 되면 다른 국가들에 대해 패권적인 의지를 강요하게 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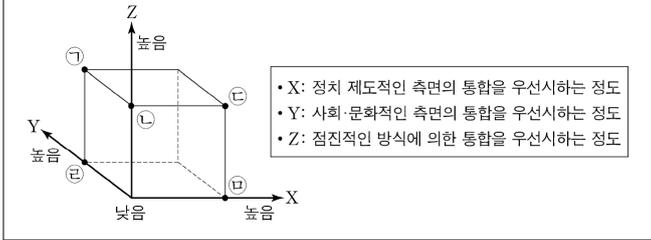
- ① (가) :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가 유일한 행위자로 간주된다.
- ② (가) : 국가 간 동맹과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군비 경쟁은 종식된다.
- ③ (가) : 국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세계 시민법은 필요하지 않다.
- ④ (가) : 인간의 본성은 국가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제 분쟁도 인간 본성과 무관하다.
- ⑤ (나) :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은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한다.
- ⑥ (나) : 전쟁 수행의 최종 목표와 외교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익이다.
- ⑦ (나) : 전쟁은 비도덕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피하다.
- ⑧ (나) : 전쟁은 선을 증진하고 불의를 바로잡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 ⑨ (가), (나) : 자국의 이익 추구보다 세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 ⑩ (가), (나) : 국제 분쟁을 해결하여 평화를 실현하려는 시도는 불가능한 허구일 뿐이다.

19

(나)의 입장에 비해 (가)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19번] [정답률 88%]

(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치적, 법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에 이르는 시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문제도 빠르게 해결되어 통일이 실현될 것이다.

(나)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영역부터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남북한의 불신이 해소되어 정치 통합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 평가 20번] [정답률 85%]

- 갑 : 일정한 생업[恒産]이 없는 백성은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군주는 백성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식을 부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백성을 선한 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한다.
- 을 : 완전한 공동체인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이다. 국가 없이 살아가는 자는 인간보다 하등하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이다.

- ① 갑 : 국가의 통치자는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
- ② 갑 : 백성들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
- ③ 갑 : 국가는 인의(仁義)가 아닌 공정한 법(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④ 갑 : 군주의 정당성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덕성에 있다.
- ⑤ 을 :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
- ⑥ 을 : 국가는 구성원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 ⑦ 을 : 국가 공동체는 개인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⑧ 을 :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 ⑨ 갑, 을 :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
- ⑩ 갑, 을 :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Q-Bank Answers & Solutions

■ 예상 등급컷

생활과윤리	평균	표준편차
	28.2	11.96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만점	50	68
1등급	47	66
2등급	44	63
3등급	39	59
4등급	32	53
5등급	25	47
6등급	18	41
7등급	12	36
8등급	8	33

1 ①, ⑧

[출제 POINT] 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특징 파악
[SOLUTION] (가)는 실천 윤리학의 입장이다. 실천 윤리학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대하여 도덕 원리를 근거로 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나)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 ① 실천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삶의 구체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이라고 본다.
 - ⑧ 메타 윤리학에서는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도덕 언어의 개념 분석과 도덕 논증의 타당성 입증이라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② 도덕적 추리와 논증 방법의 연구를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 ③ 윤리학 자체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 ④ 실천 윤리학에서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주장하지 않는다.
 - ⑤ 도덕적 관행에 대한 인과적 서술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기술 윤리학이다.
 - ⑥ 메타 윤리학은 경험적 연구를 통한 도덕성의 검증을 핵

심 과제로 삼지 않는다.

- ⑦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다.
- ⑨ 보편적인 도덕 법칙의 정립을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이론 윤리학이다.
- ⑩ 규범 윤리학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2 ③, ⑦, ⑧

[출제 POINT] 유교와 도가의 사상적 입장 파악
[SOLUTION] (가)는 유교 사상이고, (나)는 도가 사상이다. 유교는 정명(正名)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도가는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 무위자연(無爲自然)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 ③ 도가 사상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예의와 규범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⑦ 성(性)을 부여한 하늘[天]의 명령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유교 사상에만 해당되는 주장이다.
- ⑧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여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유교 사상에만 해당되는 주장이다.

[오답제끼기] ① 도가 사상은 만물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볼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가 사상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② 도가 사상은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소박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가 사상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사상은 불교이다.
- ⑤ 도가 사상은 예법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도가 사상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⑥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에서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⑨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관계에 의해 생겨남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는 사상은 불교이다.
- ⑩ 유교 사상과 도가 사상 모두 열반(涅槃)에 도달하기 위해 불변의 자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⑪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사랑[慈悲]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주장하는 자비(慈悲)를 말한다.

3 ③, ⑥, ⑦, ⑩

[출제 POINT] 성차별에 대한 보부아르의 입장 파악
[SOLUTION] 제시문은 “제2의 성”이라는 책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한 보부아르의 글이다. 보부아르는 여성이 사회 속에서 ‘여성다움’을 강요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생물학적 차이를 이유로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보부아르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성성을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반영된 사회의 산물로 본다.

- ㉔ 보부아르는 여성이 왜곡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적 독립을 성취해야 한다고 본다.
 - ㉕ 보부아르는 여성과 남성 모두 실존하는 주체로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지닌다고 본다.
 - ㉖ 보부아르는 여성이 지닌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각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보부아르는 인간에게 정해진 본성이 없다고 본다.
- ② 보부아르는 여성의 의무가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④ 보부아르는 여성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실존적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 ⑤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보부아르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⑧ 보부아르는 여성이 주체가 되고 남성이 객체가 될 때 성(性) 평등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⑨ 보부아르는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4 ④

[출제 POINT] 배아 복제와 관련된 토론의 핵심 쟁점 파악
[SOLUTION] 갑은 개체 복제에 대해 반대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을은 인간의 개체 복제뿐만 아니라 인간 배아 복제 역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④ 갑과 을은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토론의 핵심 쟁점은 “치료 목적의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 [오답제끼기] ① 갑, 을 모두 동물 복제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갑, 을 모두 인간 개체 복제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 ③ 갑, 을 모두 멸종 동물의 복원과 희귀 동물의 보존 및 식량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 복제가 사회적 유용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 ⑤ 갑, 을 모두 인간 배아는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⑥ 갑, 을 모두 인간 개체 복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 ⑦ 토론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 ⑧ 갑, 을 모두 동물 복제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한다고 보지 않는다.

5 ㄱ, ㄴ, ㄷ, ㄱ

[출제 POINT] 요나스의 책임 윤리 이해
[SOLUTION] 제시문은 과학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미리 생각해 보고,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새로운 윤리적

원리들을 발견해야 한다는 요나스의 주장이다.

- ㄱ.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에게 연구의 자유가 제한 없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ㄴ.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가 연구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요나스는 과학 기술의 폐해에 대한 책임은 인간만이 질수 있다고 본다.
 - ㄱ.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가 인류의 존속이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ㄷ.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는 과학 기술의 응용에서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ㄴ. 요나스는 과학 기술자가 내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 ㄴ. 요나스는 세대 간 호혜적 권리와 의무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기존의 윤리 방식으로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 ㄹ. 요나스는 동기를 고려하는 칸트의 의무론 같은 전통적인 인간 중심의 윤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행위의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윤리를 강조한다.
 - ㄷ. 요나스는 과학 기술 시대에 윤리적 책임으로서 ‘예견적 책임’을 강조한다.
 - ㄷ. 요나스는 가언 명령이 아닌 칸트의 정언 명령을 생태학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 ㄱ. 과학 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이다.
 - ㄷ. 요나스는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⑤, ⑧, ⑪

[출제 POINT] 정약용과 플라톤의 공직자 윤리 이해
[SOLUTION] 갑은 정약용, 을은 플라톤이다. 정약용은 공직자(목민관)가 절용(節用)과 청렴(淸廉)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 ⑤ 플라톤은 통치자가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것에 대한 지혜의 덕을 발휘해 정의로운 국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⑧ 플라톤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에 따라 사회적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 ⑪ 정약용과 플라톤 모두 공직자는 엄격한 자기 절제(節制)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정약용은 공직자가 사적 업무와 공적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
- ② 정약용은 공직자가 항상 청렴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정약용은 공직자의 검약은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 무조건적 의무여야 한다고 본다.
 - ④ 정약용은 공직자는 청탁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⑥ 플라톤은 통치를 통치자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본다.
 - ⑦ 플라톤은 철인과 군인, 생산자 모두 서로 역할 교환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⑨ 플라톤은 민주 정치 체제를 반대하였으며,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지혜로운 철인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 ⑩ 정약용은 공직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7 ⑨, ⑩, ⑪, ⑫

[출제 POINT]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이해

[SOLUTION] 값은 롤스, 음은 노직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노직은 각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⑨ 노직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 ⑩ 노직은 소유물을 얻게 되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평등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 ⑪ 롤스와 노직 모두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⑫ 롤스는 천부적 운, 사회적 운 모두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라고 주장한다. 노직은 천부적 운, 사회적 운 모두 도덕적 관점에서 임의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서 그러한 운은 개인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오답제끼기] ① 롤스는 능력과 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롤스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롤스는 순수 절차적 정의의 예로 게임(gambling)을 들었다. 그는 게임과 같이 공정한 절차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면 어떤 식의 재화의 분배도 공정하다고 본다.
- ④ 롤스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자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았지, 천부적 재능 자체를 공동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 ⑥ 노직은 사회적 유용도나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 원리를 정형적인 분배 원리라고 비판한다.
- ⑦ 노직은 분배된 결과보다 분배의 역사적 과정에 의해 분배의 정당성이 결정된다고 본다.
- ⑧ 노직은 개인의 과거 행적만이 재화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산출한다고 주장한다.

8 ④, ⑥

[출제 POINT] 볼노브의 거주 윤리 이해

[SOLUTION] 제시문은 거주에 대한 볼노브의 주장이다. 볼노브는 거주가 의미하는 것이 임의적인 위치의 낮은 자로서 공간에 던져짐이 아닌, 분명한 위치 공간 속에서 안락

을 얻고, 이 공간 속에서 굳건하고 밀바탕이 되는 삶의 기초를 얻는 것이라고 본다.

- ④ 볼노브는 거주는 친숙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얻고 삶의 기초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⑥ 볼노브는 거주 공간은 참된 자신을 되찾는 내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볼노브는 거주는 단순히 장소에 속해 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 ② 볼노브는 거주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각별한 노력을 통해 획득된다고 본다.
- ③ 볼노브는 거주를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행위라고 본다.
- ⑤ 볼노브는 거주가 세상과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⑦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 세계에 열려 있지 않은 폐쇄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⑧ 볼노브는 진정한 거주는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⑨ 볼노브는 과거 민족의 거주지가 지녔던 성스러움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변함없이 집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집은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의 공간이 된다고 본다.
- ⑩ 볼노브는 인간이 거주하는 곳, 인간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사하는 곳인 집을 세계의 중심으로 본 것이지만 인간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세계의 중심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9 ①, ③

[출제 POINT]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이해

[SOLUTION] 값은 롤스, 음은 싱어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싱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이라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의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① 롤스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 개선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③ 롤스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빈곤국이라도 질서 정연한 국가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② 롤스는 원조를 통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④ 롤스는 열악한 천연자원이나 빈약한 부를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적정 수준의 사회나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롤스와 싱어 모두 국가 간 부의 재분배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
- ⑥ 싱어는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시민들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⑦ 싱어는 원조가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친소 논리, 소유 권리론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 다.
- ⑧ 싱어는 원조의 목적을 부정의의 교정이 아닌 공익 증진이라고 본다.
 - ⑨ 싱어는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조는 지리적 근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⑩ 원조가 세계 시민주의 정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싱어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10 ⑥, ⑦, ⑧, ⑩

[출제 POINT]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 벤담, 칸트의 입장 이해

[SOLUTION]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 병은 칸트이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으로 보고,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본다.

- ⑥ 형벌은 범죄 예방에 지속적 효과가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벤담의 입장에서 칸트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 ⑦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응보론을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에 대해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⑧ 형벌은 범죄 억지 효과를 갖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 칸트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 ⑩ 보복법만이 형벌에서 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칸트의 입장에서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베카리아와 벤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다.
- [오답제끼기] ①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②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은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③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④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공리를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칸트는 형벌을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 정의 실현이라고 본다. 따라서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없다.
 - ⑨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보편적 도덕 원리인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1 ②, ⑤

[출제 POINT]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이해

[SOLUTION]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대해 항거

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본다.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 ② 롤스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부정의한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 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전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는 다른 수단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민주적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의 행위라고 본다.
- ③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인 까닭에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 ④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경고나 훈계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위협일 수는 없다.
 - ⑥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고 본다.
 - ⑦ 싱어는 시민 불복종에 앞서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⑧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성공 가능성과 불복종 행위의 영향을 고려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⑨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 ⑩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며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⑪ 롤스와 싱어 모두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실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12 ②, ④, ⑦, ⑧

[출제 POINT] 현대 덕 윤리와 칸트 윤리에 대한 이해

[SOLUTION] 갑은 현대 덕 윤리 사상가인 매킨타이어이고, 을은 칸트이다.

- ② 매킨타이어는 덕을 사회적 실천을 통해 선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으로 보고, 유덕한 품성을 기를 것을 강조한다.
 - ④ 매킨타이어는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본다.
 - ⑦ 칸트 윤리 사상에서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와 선의지는 모두 도덕 법칙의 존재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다.
 - ⑧ 칸트는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도 선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행위라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매킨타이어는 덕은 옳고 선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후천적인 것으로 본다.
- ③ 매킨타이어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행위의 동기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품성이라고 본다.
 - ⑤ 칸트의 입장이 아닌 공리주의의 입장이다.
 - ⑥ 칸트는 도덕적 행위자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서 행위

- 하기보다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 해야 한다고 본다.
- ⑨ 매킨타이어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동기와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⑩ 매킨타이어와 칸트 모두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자연적 본성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13 ③, ④, ⑧, ⑨, ⑩

- [출제 POINT]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의 음식 윤리 이해
 [SOLUTION] (가)는 유교 사상이 황정견의 음식 윤리인 ‘식시오관(食時五觀)’을 설명한 내용이고, (나)는 불교 경전 “맛지마 니까야”에 수록된 음식 윤리에 관한 내용이다.
- ③ 유교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살피는 덕의 실천이라고 본다.
 - ④ 유교는 음식 섭취에서 사치스러움을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 ⑧ 불교는 음식 생활에서 검소와 절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⑨ 유교와 불교 모두 음식을 먹을 때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성찰하는 자세를 강조한다.
 - ⑩ 유교와 불교 모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윤리적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불교에서 강조하는 음식 윤리이다.
 ② 유교는 음식 생활에서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⑤ 불교는 음식을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
 ⑥ 불교는 음식을 먹는 행위를 수행의 연장으로 본다.
 ⑦ 불교는 음식을 모두 금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4 ②, ⑦

- [출제 POINT]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이해
 [SOLUTION] 제시문의 ‘나’는 인터넷상에서 각 개인이 양심과 도덕성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려는 노력으로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제도적 장치로만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② ㉠에는 “제도적 규제보다 자율적 규제가 적절한 해결책임을 간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 ⑦ ㉠에는 “개인의 자정 노력만으로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 [오답제끼기] ① 어떤 사람들은 익명성으로 인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③ 어떤 사람들은 해악 금지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④ 어떤 사람들은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어떤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해야 악성 댓글이 예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⑥ 어떤 사람들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강제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⑧ ‘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 ⑨ ‘나’는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야 함을 주장하지 않는다.

15 ⑥, ⑦, ⑨

- [출제 POINT] 환경 윤리에 대한 싱어, 레건, 칸트의 입장 이해
 [SOLUTION] 갑은 싱어, 을은 레건, 병은 칸트이다.
- ⑥ 칸트는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 이유는 그것이 인간성 실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⑦ 칸트는 어떤 존재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근거는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 ⑨ 싱어와 레건은 자율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싱어는 이익 관심을 지닌 모든 개체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② 칸트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③ 레건과 칸트의 공통점이다.
 ④ 레건과 칸트의 공통점이다.
 ⑤ 싱어와 레건의 공통점이다.
 ⑧ 싱어, 레건, 칸트 모두의 공통점이다.
 ⑩ 싱어, 레건, 칸트 모두의 공통점이다.

16 ③, ④, ⑨

- [출제 POINT]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의 죽음관 이해
 [SOLUTION]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플라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플라톤은 육체를 순수한 인식에 방해하는 감옥으로 여기고, 죽음을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본질을 알면 사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 ④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살아 있을 때에는 살아 있기 때문에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죽은 이후에는 죽었으므로 죽음을 느낄 수 없다고 본다.
 - ⑨ 에피쿠로스와 플라톤은 모두 지혜로운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오답제끼기] ①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는 육체와 감각이 모두 소멸한다고 본다.
 ②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원자의 흩어짐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
 ⑤ 플라톤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본다.
 ⑥ 플라톤은 죽음을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계기로 본다.
 ⑦ 플라톤은 죽음을 고통이라고 보지 않는다.
 ⑧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서 벗어나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⑩ 에피쿠로스와 플라톤 모두 죽음 이후 내세에서 최고선인 행복이 실현된다고 보지 않는다.

17 ⑤, ⑦, ⑩

[출제 POINT]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 이해
 [SOLUTION] 제시문은 대중문화의 상업화를 비판한 아도르노의 주장이다.

⑤ 아도르노는 산업화된 대중문화를 문화 산업이라고 칭하며, 문화 산업이 예술을 미적 가치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한다고 비판한다.

⑦ 아도르노는 예술의 상업화로 예술의 자율성이나 미적 가치가 아닌 상업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다고 본다.

⑩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의 생산물을 대중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 만든 것이 아닌 자본을 지닌 문화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

[오답제끼기] ① 아도르노는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독창적 예술로 발전하기 어렵다고 본다.

②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하에서 대중문화는 획일화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증가시킨다고 본다.

③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의 표준화된 양식은 문화 소비자의 주체성을 약화시킨다고 본다.

④ 아도르노는 산업화된 대중문화는 소비자의 자발성과 창의적 사고를 위축시킨다고 본다.

⑥ 아도르노는 산업화된 대중문화가 대중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빼앗고 둔화시킨다고 본다.

⑧ 아도르노는 예술의 상업화로 대중의 취향이 반영된 예술 작품이 등장했다고 본다.

⑨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은 자본을 바탕으로 대중의 욕구와 문화 생산물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

18 ⑥

[출제 POINT] 국제 관계에 대한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입장 이해

[SOLUTION] (가)는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이상주의의 관점이고, (나)는 현실주의의 관점이다.

⑥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본다.

[오답제끼기] ① 이상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② 이상주의는 국가 간의 이성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자 한다.

③ 이상주의에서는 국제법이나 국제 규범으로 제도를 개선

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이상주의에서는 인간의 본성도 국가의 속성도 모두 선하며, 국가들은 상호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본다.

⑤ 현실주의는 국제 관계에서 세력 균형을 통해 영구적 평화가 아닌 전쟁의 예방이나 억지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⑦ 현실주의에서는 전쟁을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⑧ 현실주의에서는 전쟁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⑨ 현실주의는 국가가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 관계도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⑩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모두 각각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19 ③

[출제 POINT] 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 이해

[SOLUTION] (가)는 남북한이 정치적, 법적 결단과 같이 정치적 영역에서 일괄 타결이 이루어질 때 통일이 빠르게 실현될 것이라는 입장이고, (나)는 비정치적 영역부터 서서히 교류 협력을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의 입장은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통합보다 정치 제도적인 측면의 통합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X는 높고, Y는 낮다. 또한 (가)의 입장은 (나)의 입장에 비해 급진적인 방식에 의한 통합을 강조하기 때문에 Z는 낮다.

[오답제끼기] ①, ②, ④, ⑤ 모두 (나)에 비해 (가)의 입장이 지닌 상대적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20 ①, ②, ④, ⑤, ⑥, ⑦, ⑧

[출제 POINT] 국가에 대한 맹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파악

[SOLUTION] 갑은 맹자,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맹자는 국가의 통치자가 덕으로써 백성을 감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① 맹자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업이 보장되어야 백성들이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정을 꾸리듯이 국가도 인간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④ 맹자는 군주의 정당성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도덕성에 있다고 본다.

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공동체인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⑥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서 인간은 선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⑦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 자아실현

의 기회를 제공받는다고 본다.

⑧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오답제끼기] ③ 맹자는 국가는 인의(仁義)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⑨ 국가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인간들의 계약으로 수립된다는 입장은 사회 계약론의 국가관이다.

⑩ 선의 이데아를 통찰한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플라톤이다.